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국토교통부 |                  | <b>보 도 자 료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배포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8. 5. 23.(수) / 총 6매(본문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<br>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<br>첨단도로안전과 |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과장 박연진, 사무관 김강문, 주무관 김경완<br>• ☎ (044) 201-3924, 3925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부<br>자연생태정책과   |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과장 유승광, 주무관 이종선<br>• ☎ (044) 201-7220, 7225          |
| 보 도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18년 5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3.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동물 찾길 사고 방지에 국토교통부·환경부·시민사회 손잡다

- ◇ 국토교통부·환경부 공동 「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」 마련
- ◇ 시민단체가 개발한 동물 찾길 사고 조사 앱(APP)을 정부 시스템과 연계, 조사통계관리 및 저감대책 시행 등을 위한 만관 협력 본격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환경부(장관 김은경)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「동물 찾길 사고(로드킬) 조사 및 관리 지침」을 제정하고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그간 동물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로위에서 차량 사고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.

### < 동물 찾길 사고 발생 현황(건) >

- \* (고속국도) 2,360('12) → 2,188('13) → 2,039('14) → 2,545('15) → 2,247('16) → 1,884('17)
- \* (일반국도) 3,174('12) → 7,452('13) → 8,727('14) → 9,563('15) → 12,867('16) → 15,436('17)

- 또한, 동물 찾길 사고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
□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동물 찾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, 조사방식 개선 및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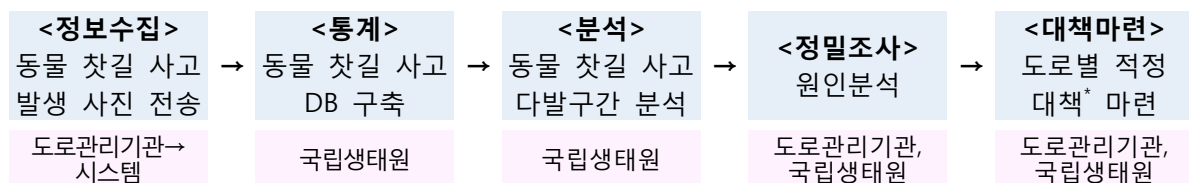
- 이번 지침은 국토부, 환경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동물 찾길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,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(手記)로 기록하는 방식 대신, 시민단체가 개발했던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\* 앱(APP)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.

\*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개발한 ‘굿로드(Good Road)’를 활용한 것으로, 앱의 관리권한 및 축적된 데이터 등을 환경부가 넘겨받아 전문 조사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

-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“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”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,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.

-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,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동물 찾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.

#### <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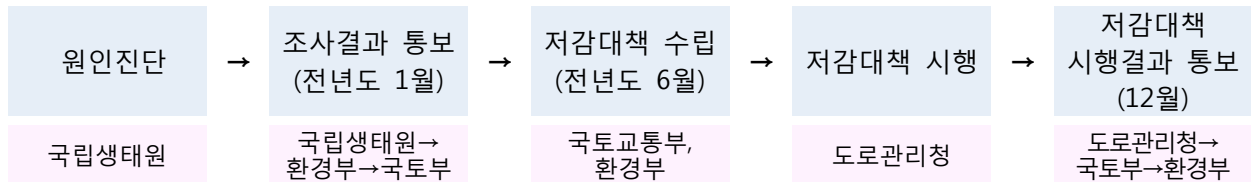
\* 생태통로, 유도울타리 설치 등

□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동물 찾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·조정 등을 총괄하고 환경부는 조사·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한다.

- “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”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의 집계·관리·분석을,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하였다.

< 동물 찾길 사고 감소대책 추진절차 >



- 한편,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동물 찾길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.
- 연내 누리집(홈페이지)을 개설하여 동물 찾길 사고 발생 통계 정보는 물론 동물 찾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동물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.
- 아울러, 시민사회와 함께 동물 찾길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하여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및 동물 찾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지침이 사람과 동물을 모두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동물 찾길 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.

## 1. 주요내용

### □ 동물 찾길 사고 조사체계 개선

- (조사체계 일원화) 도로관리청(국토부), 지방환경청(환경부) 등에서 추진하던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일원화, 전 도로구간 확대
- (동물 찾길 사고 시스템 구축) 수기작성 보고방식에서 위치기반 앱(APP)을 활용한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

#### <동물 찾길 사고 조사 체계>

- (1단계-수집) 앱(APP)을 활용한 조사방식 간소화(조사원)
- (2단계-분석) 사고 중 확인, DB 및 통계 분석 등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(국립생태원)
- (3단계-대책) 도로별 통계자료 제공, 저감대책 수립(도로기관)

- (정밀조사·권고) 집중발생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(국립생태원)를 실시 하고 도로관리기관에 유도울타리, 생태통로 등 저감대책 수립권고

### □ 동물 찾길 사고 관리체계 개선

- (기관역할 명확화) 국토부는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·조정 총괄, 환경부는 조사·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대책 수립
- (사체 활용규정 마련) 법정보호종(천연기념물, 멸종위기종) 사체의 학술적 이용 활성화(국립생물자원관 이관)

### □ 부처간 협업에 의한 동물 찾길 사고 예방·저감대책 수립

- (저감대책) 종별, 도로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, 생태통로, 유도울타리 등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제시
- (예방대책) 동물 찾길 사고 집중예보제 실시, 운전자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, 동물 찾길 사고 정보제공(내비게이션)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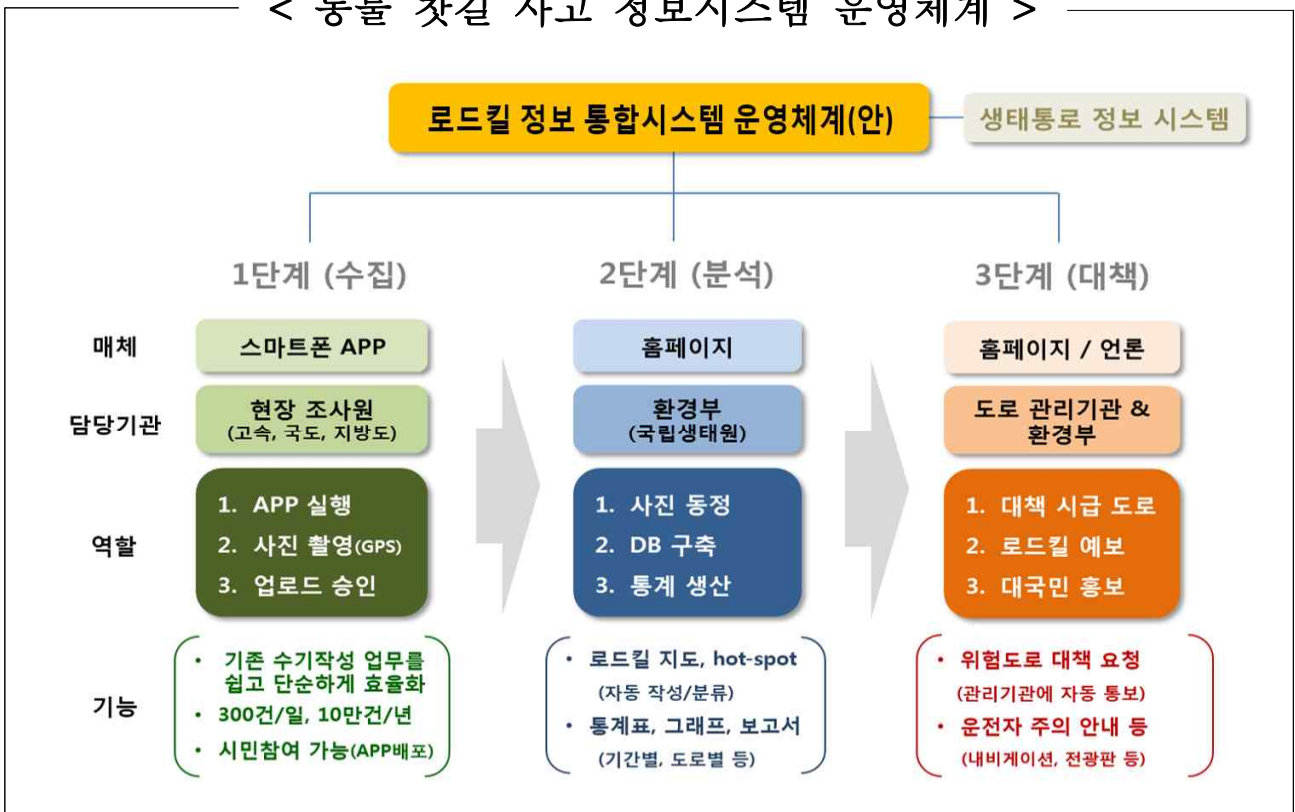
## 2. 향후 계획

### □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시행(5.28)

## 1.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이란?

- 스마트폰 위치기반 앱(APP)을 활용하여 촬영된 동물 찾길 사고 사진을 분석하여 지역별, 도로별, 종별 동물 찾길 사고 DB로 구축, 향후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
- (1단계-수집) 조사 앱(APP)을 활용한 동물 찾길 사고 조사(조사원)
  - (2단계-분석) 사고 동물 종 확인, DB 및 통계 분석(국립생태원)
  - (3단계-대책) 도로별 통계자료 제공, 저감대책 수립(도로기관)

### <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>



## 2. 동물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방향은?

- 동물 찾길 사고 집중예보제 시행, 동물 찾길 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, 내비게이션 안내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강화
  - (집중 예보제 시행)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 (5월, 11월\*)에 언론, 도로전광판,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집중홍보 실시
    - \* 동물 찾길 사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라니의 새끼가 어미로부터 독립하여 이동하는 시기
  - (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) 동물 찾길 사고 담당 기관과 업체 및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찾길 사고, 생태통로 인식증진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
  - (동물 찾길 사고 정보제공 등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) 동물 찾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 내비게이션 안내, 운전자 예방교육, 홍보캠페인 등 실시

## 3. 동물 찾길 사고 조사결과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조치는?

- 동물 찾길 사고 조사결과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(국립생태원)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, 동물 찾길 사고 발생중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생태통로, 유도울타리, 안내전광판 설치 등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임
- 아울러, 해당 도로관리기관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다음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